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브루클린 유대인 어린이 박물관(JEWISH CHILDREN'S MUSEUM)의 반유대주의 노트에 대한 수사 지원 지시

"저는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한 유대교 어린이 박물관(Jewish Children's Museum) 전면에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낙서한 일에 크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반유대주의와 차별, 또는 혐오에 대해 불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과거 수차례의 협박 이후 발생한 브루클린 브리지의 반유대주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Ari Halberstam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훌륭한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과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을 한곳에 모아 관용을 장려하려고 만들어진 이러한 장소가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미국에서 반유대주의와 기타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비열한 폭력 행위를 비난하고 모든 종류의 혐오를 뿌리 뽑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에 따라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즉시 뉴욕경찰(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언제나, 우리 뉴욕주에는 혐오가 있을 장소는 없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